

금강권 관광 광역화 시너지 효과 창출

군산시, 동부권 도서관 건립 '박차'

군산근대역사박물관-국립생태원 '관광활성화 및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과 '관광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근대문화유산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군산시의 대표관광지인 근대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최고 생태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금강권의 관광 광역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만남이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연구하는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 체결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 강화함으로써 서해 중부지역의 역사와 생태문화의 거점을 마련하게 되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 마케팅 활동 ▲상호 기관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 ▲공동 마케팅을 위한 시설 및 홈페이지 활용 ▲기타 상호

합의한 협력사업 및 공동 발전 방안 등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생태원의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7일부터 각 기관의 상호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이 이루어졌으며, 할인은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의 입장권을 소지했다면 상호 기관에 입장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25~50%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향후 동백대교의 개통을 앞두고

고 핵심 관광자원이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북과 충남의 종합적 관광이키지를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과 생태원 양 기관의 관광자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여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앞으로 군산의 주요 관광 시설과 인근 전시장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과 상호 교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사업비 98억원 투입 도시형 대규모 분관 규모 건립

군산시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도서관 건립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도서관은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100㎡의 지하층 지상8층의 도시형 대규모 분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인접하고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 도서관 본래 기능인 교육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전평가, 지방재정부자심사 등을 완료했으며, 20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준기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동부권도서관은 기존의 딱딱한 공간 구성이 아닌 편안하고 친숙한 인테리어를 접목하고 공공건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한 내부구성을 통한 오픈형 도서관으로 참여했다. 향후 재경향우회는 동향으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아파트와 주부클럽의 찾아가는 장터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직거래 행사를 발판삼아 전국 농협마트 및 중대형마트에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익산 우수농산물의 적극적 마케팅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직거래 장터는 도시 소비자에게 시종가깝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16일 맞춤형복지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대한 역량 강화·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군산시, 담당 공무원 대상 슈퍼비전 교육 실시

군산시는 16일 맞춤형복지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영화 군산세 사회 복지학과 교수를 슈퍼비전자로 초빙하여 참고에서 살고 있는 장년 1인 가구 A씨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과정을 점검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129콜센터를 통해 A씨의 사연을 접수받고 나은8동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하여 문제 및 위기도 등을 직접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A씨의 체중이 평균에도 미

치지 못하는 점 ▲폐질원이 의심되는 건강문제 ▲창고가 거주지라는 주거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발견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례를 이번 슈퍼비전의 주제로 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영화 슈퍼비전어는 그동안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사례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당 사례에 필요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했다.

또한 대상자 문제해결을 위한 서

비스 계획 수립시 대상자의 감정과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통합사례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읍면동 맞춤형복지지원원은 "주민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원하는 바를 파악하도록 하겠으며 서비스제공 뿐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은 지난해 5개동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6개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송동 등 10개동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새마을회 지역사랑 실천

익산시 새마을회가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새마을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배추 3200포기와 무 1500개로 김치를 담가 소의층에 전달한다.

읍면동 새마을 회원 450여명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7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익산으로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배추 1000포기와 무 1500개를 기증해 진행했다.

정현을 시장은 16일 오전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김치를 직접 담으며 사랑을 더했다.

조흥찬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서울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익산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안재점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익산에서 생산된 고구마, 양파, 생강, 탐마루 쌀 등 총 7개 품목 판매를 통해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다각화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시장은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탐마루 고구마를 나눠주며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익산시 박종길 재경향우회장과 농협시지부장 지역 농협장 등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찾아가는 소비자 마케팅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힘썼다.

이번 행사에는 농특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 소득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재경향우회는 동향으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아파트와 주부클럽의 찾아가는 장터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직거래 행사를 발판삼아 전국 농협마트 및 중대형마트에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익산 우수농산물의 적극적 마케팅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직거래 장터는 도시 소비자에게 시종가깝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홍보 나서

군산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 보건소는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마트, 터미널, 대학교 등에 홍보물 배부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실 설치 등 기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마련 위한 장터운영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는 16일 휴먼시아 단지 내에서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장터'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주어 이웃 간 화합을 조성하고, 관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위해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지역이동센터, 어린이집, 종교기관, 학교 등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동네복지 위원회가 힘을 모았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시 보건소의 치매예방프로그램, 통합건강증진

센터의 기초검진 및 신체이검사 스트레칭검사 부스가 운영돼 지역주민들의 참여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우리 함께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황규태 휴먼시아 관리소장은 "이번 장터를 통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동체식이 더해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